

Korean Trail 51st Story

내포문화숲길 20코스 백제부흥군의 숨결이 가득한 오솔길

내포문화숲길은 가야산을 중심으로 당진·서산·홍성·예산 등 4개 시·군에 걸쳐 있는 탐방길이다. ‘원효깨달음길’ ‘백제부흥군길’ ‘내포천주교순례길’ ‘내포역사인물동학길’ 등 4개 테마로 조성됐다. 걷는 길도 좋지만, 역사와 문화를 고루 만날 수 있는 점이 매력이다.

글 이창호 기자·사진 전수영 기자



내포(內浦)는 바다나 호수가 물으로 파고든 지형으로 조선 초기 이후 충남의 서북부 지역을 뜻한다. 조선 시대 지리서인 이증환의 '택리지'에는 "충청도에서는 내포가 가장 좋다. 공주에서 서북쪽으로 200리쯤에 가야산이 있다. 가야산의 앞뒤에 있는 10개 고을을 함께 내포라 한다. 지세가 한 모퉁이에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큰 길목이 아니므로 임진(壬辰)과 병자(丙子)의 두 차례 난리도 여기에는 미치지 않았다. 땅이 기름지고 평평하다. 또 생선과 소금이 매우 흔하므로 부자가 많고 여러 대를 이어 사는 사대부 집이 많다"고 기록돼 있다.

내포문화숲길은 내륙 깊숙이 발달한 하천을 이용한 상가래와 문화의 전파가 왕성했던 내포문화권(서산시·당진시·홍성군·예산군)의 자연경관과 생태자원, 역사·문화 유적을 잇는 327.3km 구간으로, 충남에서 가장 길게 조성된 도보길이다. 이 길은 '원효개달음길' '백제부흥군길' '내포천주교순례길' '내포역사인물동학길' 등 4개의 테마, 24개 코스(311.3km)와 2개 지선(16km)으로 이뤄진다.

안중신 내포문화숲길 팀장은 "내포지역을 한 바퀴 에두르는 내포문화숲길은 제주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에 버금가는 도보여행길"이라며 "제각각 품은 풍경과 역사 이야기는 다르지만 걷는 내내 청정자연을 즐길 수 있다"고 말한다.

'백제부흥군길'에 속하는 20코스는 대덕산 입구에서 아미산과 몽산을 거쳐 면천읍성에 이르는 12.5km 구간으로 5시간 정도 소요된다. 홍성 오서산의 장곡산성(주류성), 예산의 봉수산 임존성을 거쳐 당진의 아미산까지 이어지는 '백제부흥군길'은 총 8개 코스로, 백제를 지키려는 민초들의 숭한 이야기를 담아낸다. 660년 7월 백제의 수도 사비성이 함락된 이후 임존성과 주류성을 거점으로 한 백제부흥운동은 무려 3년 넘게 이어졌다.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숲길

이번 팀방은 당진읍 채운리에 위치한 대덕산 입구를 들머리로 삼아 시작한다. '20코스 백제부흥군길' 안내판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어린 시절 시골에서 흔히 만날 수 있

던 호젓한 산길로 발걸음을 옮긴다. 흙길 오솔길이어서 걷기도 좋고 나무에서 떨어진 밤송이와 상수리, 낙엽들이 가을 산의 고즈넉함을 넉넉하게 보여준다.

느릿느릿 걷다 보면 산행하



는 사람과 마주치고, 야트막한 뒷동산이지만 숲이 제법 울창하다. 소나무뿐만 아니라 상수리나무·신갈나무 등이 무성하게 가지를 위로 뻗치고 있다. 갈림길에 설치한 이정표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빨간색과 노란색의 껍리본이 길을 안내한다. 이 길은 무너지는 나라를 되찾으려던 민초들의 숨결뿐만 아니라 아



이 태어난 근본을 알고 조상을 잘 섬기며 그리는 마음을 지니는 효성과 결초보은의 예를 다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일깨우는 뜻으로 '도리봉'(道理峰)으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미인 눈썹같이 아름다운 아미산

오랜 세월 동안 후손들이 사람의 도리를 제대로 하는지 지켜보았던 소나무 아래서 길동무와 세상사 이야기를 나눈 뒤 다시 걷는다. 죽동2리의 대숲을 거쳐 당진의 최고봉인 아미산(峨嵋山·349m)으로 들어선다. 멀리서 보면 '미인의 눈썹같이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처럼 산세가 험하지 않고 곱다. 탐방로도 흙길과 나무 데크, 돌길, 오르막과 내리막길 등 다양

해 산행의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다. 정상인 3봉과 2봉의 갈림길에서 누각 '아미정'이 세워져 있는 3봉으로 가는 길을 버리고, 소나무 가지에 눈 내린 설경이 으뜸인 제2봉을 밟는다. 먼 곳에서 아미산을 바라보면 2봉이 '사람의 코처럼 보인다' 하여 '코생이'라 불리는 이곳에 서면 사방으로 시야가 터진다. 가까이는 다불산(多佛山·321m)과 낮은 산릉들, 저 멀리는 서해와 합덕평야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해인 수녀의 '사랑은 나무와 같다'를 비롯해 허영자의 '긴 봄날', 홍금자의 '그리움' 등 유명 시인의 시(詩)를 써놓은 팻말을 따라 쉬엄쉬엄 길을 따라가면 아미산과 몽산(夢山·225m)으로 이어지는 임도와 만난다. 당진 외국어교육센터를 지나면 낙엽이 두껍게 깔린 길 양편으로 자작나무들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마르나 젖으나 불에 탄 때 자작자작 소리를 내며 탄다는 자작나무 사이로 상큼한 바람이 분다. 길이 그렇게 길지 않고, 자작나무도 그리 많지 않아 아쉽지만 그래도 또 다른 이국적 풍경과 숲 내음이 탐방자의 마음을 탁 트이게 해준다.

자작나무길을 지나면 일제강점기에 t당 금 함유량이 높아 노다지로 소문났던 금광동굴이 눈에 띈다. 지금은 폐광되어 쓸쓸한 흔적만이 남아 있다. 이정표 '면천읍성 4.09km, 승전목 6.5km, 대덕산 입구 8.11km'를 지나 임도와 산길을 따라간다.

청량한 공기를 벗 삼아 산길을 오르면 테피식 산성인 몽산성 터에 이른다. 삼국사기에선 백제에 의해 활발히 축조된 성곽이라 전하며, 그 형태는 몽산의 7~8부 등고선을 따라 산을 한 바퀴 두른다. 성을 구축했던 흔적과 상주도 없이 구천을 헤매는 무주고혼(無主孤魂)을 위해 제사를 지냈던 여단 등이 남아 있고, 안내판을 통해 성의 역사·성의 분류·성문의 형식·공성 무기 등을 배울 수 있다. 폴꽃만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미산과 몽산 곳곳이 역사의 현장이고 민초들의 애환이 서린 곳이었다.

백제부흥 전쟁의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했던 몽산성을 뒤로 하고 면천읍성으로 향하면 성의 방어·감사·통산·지휘 등을 위해 구룡부에 설치한 제4망루의 추정지를 시작으로 제3, 제2, 제1 망루 추정지가 이어진다. 망루 추정지마다 보이는 풍경과 운치가 색다르다. 8개의 망루가 있었던 것

으로 추정되는 몽산에서 하산해 옛 면천 관아의 문루인 풍락루(豊樂樓)와 고려 개국공신이자 면천 복씨 시조인 복지겸의 딸이 심었다는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551호) 두 그루를 지나면 20코스의 종착점인 면천읍성이 발길을 멈추게 한다.

면천읍성은 1438년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쌓은 평지 읍성으로 성벽은 자연석을 잘 다듬어 쌓았는데 외부는 석축이고, 내부는 돌을 채운 후 흙으로 덮었다. 현 성벽의 둘레는 1천336m인데, 성을 쌓을 당시 치성과 웅성의 길이를 합한 전체 길이는 1천564m로 추정된다. 현재 면천읍성은 서산의 해미읍성처럼 객사와 동헌 등 관아는 물론 성곽과 성문 등을 2020년까지 복원할 계획이다. 동네 뒷동산의 호젓한 오솔길을 거니는 듯 산책하기 좋은 숲길이지만 면천읍성에서 출발지로 되돌아가는 교통편이 다소 불편하다. ●





③ 공동묘지와 역새 너머로 당진의 최고봉인 아미산, 아미산과 다불산을 이어주는 구름다리, 다불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① '20코스 백제부흥군길'은 당진을 채운리에 위치한 대덕산 입구에서 시작한다. 호젓한 오솔길에 깔린 낙엽을 밟는 발걸음이 가볍다.



②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를 공원화한 대덕공원



④ 가마솥 형상의 북부산(伏釜山) 정상에 우뚝 솟아 있는 '도리봉 소나무'. 2016년 당진시의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됐다.



⑤ 일제강점기에 활발하게 채취하던 금광 동굴. 아미산 광석은 1당 금 함유량이 높아 경제성이 좋았다고 한다.

⑦ 성의 방어·감사·통산·지휘를 위해 구릉부에 설치한 제3망루 추정지에서는 순성면 성북리의 잣디저수지를 볼 수 있다.



⑧ 옛 면천군의 문루인 풍락루. 1851년 당시 면천군수인 이관영이 새롭게 지어 '豊樂樓'(풍락루)라 명명했다.



⑥ 몽산에는 산꼭대기 능선을 따라 조성한 테피식 산성의 흔적이 남아 있다. 안내판을 통해 성곽의 역사와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⑨ 수령 1천100년으로 추정하는 면천 은행나무. 이 두 그루의 은행나무는 면천 두견주와 함께 면천의 명물로 손꼽힌다.



용현 자연휴양림

심산유곡에서의 편안한 휴양

용현 자연휴양림 뒤로는 가야산 줄기인 석문봉과 옥양봉 그리고 일락산으로 이어지는 금북정맥이 병풍처럼 펼쳐진다. 맑고 깨끗한 용현계곡을 품은 이 휴양림을 베이스캠프로 삼아 서산 마애삼존불, 보원사지, 개심사 등 백제 시대의 문화유산들을 둘러볼 수 있다.

글 이창호 기자 · 사진 전수영 기자

신라 시대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전설이 서려 있는 가야산(678m)은 충남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금북정맥에 우뚝 솟아 있다. 가야산은 백제 시대부터 불교문화를 꽃피웠던 충남 내포의 중심지로 예산 수덕사와 서산 개심사를 비롯해 백암사지와 원효암 터 등이 남아 있다. 용현계곡 입구의 강댕이 미륵불을 시발점으로 하는 내포문화숲길 4코스는 자연휴양림과 통통고개를 거쳐 덕산도립공원 주차장까지 이어진다. 용현은 예로부터 강당을 설치하고 글을 가르친 곳이라 하여 '강당이 마을'로 불리고 있다.

합천의 가야산과 동명이산(同名異山)으로 그리 높지 않으나 산자락만 큼은 치마폭처럼 넓다. 어머니 품처럼 아늑한 곳에 휴양림이 자리하고 있다. 산등성이와 계곡 주변으로 숲속의 집과 연립동, 산림문화휴양관이 점점이 박혀 있다. 숲속의 집은 소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굴피나무, 편백나무, 층층나무, 참나무 등 나무 이름을 따서 지었다. 맨 위에

있는 301호, 숲속의 집 '소나무'는 탁 트인 전망이 좋다.

야영장에는 총 20개 야영 데크가 있고, 데크 사이에 고정식 테이블 4개, 취사장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목재펠릿보일러를 가동해 온수순환방식으로 데크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던 황토온열 데크는 지난 1월부터 폐쇄해 이곳에서 겨울철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아쉬움이 남는다.

자연휴양림 안에 흐르는 용현계곡은 수량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1급인 '황금박쥐'(천연기념물 제452호)와 수리부엉이, 가재와 개뿔벌레 등이 살고 있을 만큼 깨끗하다. 계곡에서 백암사지 가는 길엔 상사화가 지천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고, 일락산으로 오르는 길에서는 수리부엉이 한 쌍이 둥지를 틀고 살아왔기 때문에 붙여진 수리바위와 마주친다.

숲 속에 조성된 탐방로와 등산로는 최고의 힐링 장소다. 야영장 옆 목교에서 숲속의 쉼터를 지나 사방댐을 거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숲

탐방로는 730m 코스로 아침 산책하기에 제격이다. 걷다 보면 청량한 공기가 들숨을 따라 밀려온다. 나무의자에 앉아 삼림욕을 하니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까치박달나무, 개암나무, 애기다나무가 자생하고 있어 숲 체험 학습장으로 손색이 없다. 매달 프로그램을 달리하는 유아숲체험의 11월 프로그램은 '자연물과 친해져 봐요'라는 주제로 구멍에 술방울 던져 넣기, 눈감고 낙엽 소리 듣기, 낙엽 날리기, 소나무 솔잎 개수 알기 등을 진행한다.

등산로는 A코스(휴양림~통통고개~옥양봉~석문봉~일락산~전망대~사방댐~휴양림, 11km, 4시간 30분), B코스(휴양림~통통고개~백암사지~갈림길~백암사지~사방댐~휴양림, 6.3km, 2시간 30분), C코스(휴양림~사방댐~석문봉~옥양봉~백암사지~사방댐~휴양림, 10km, 4시간), D코스(휴양림~사방댐~정자~일락산~전망대~사방댐~휴양림, 9km, 3시간 30분) 가운데 취향과 체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자연휴양림 인근에는 서산 마애삼존불과 보원사지 외에 전국 5대 명찰 중 하나로 손꼽을 정도로 아름다운 개심사, 선사들의 수도장인 수덕사, 실학자이자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의 고택 등이 있다. ▼

Tip

[이용 방법 & 요금]

용현 자연휴양림은 내포문화숲길 탐방의 베이스캠프로 안성맞춤이다. 서해안고속도로와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에서 20분 이내의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다. 체크인 시간은 오후 3시, 체크아웃 시간은 정오다. 침구, 식기, 밥술 등 객실 내 비품은 투숙 정원에 맞춰져 있다. 객실 요금 성수기(7월 15일~8월 24일)·주말(금, 토요일, 공휴일 전일)과 비수기가 다르다.

숲속의 집 6인실 10만4천원(성수기와 주말)/5만8천원(비수기 평일), 8인실 13만4천원/7만7천원, 10인실 15만1천원/9만1천원.

연립동 5인실 8만5천원/4만6천원.

산림문화휴양관 4인실 6만8천원/3만9천원, 5인실 9만1천원/5만원, 6인실 11만9천원/6만7천원.

야영데크 8천500원/7천원(입장료와 주차료 별도).

[문의]

용현 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 041-664-1978

[가는 길]

